

## 레슬리 알렌 박사, 애가, 세션 8,

### 애가 3: 23-33

© 2024 레슬리 알렌과 테드 힐데브란트

애가서에 대한 강의를 하는 Dr. Leslie Allen입니다. 8회 애가 3:23-33입니다.

멘토가 3장에서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과 3장에서 더 나아가는 것은 모두 회개를 위한 기도를 부르기 위한 서곡입니다.

회개는 멘토가 3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할 인간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는 실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돌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신실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찾으라. 성경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34편, 17절부터 19절까지에는 한 가지 방법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무엇인지 주목하십시오. 의인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심령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시나요? 의인, 의인. 그리고 좋은 삶을 살라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며, 당신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해 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 책임 있게 살아왔을 때, 선한 행실로 대문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뒷문이 있습니다. 뒷문은 양심의 가책을 직면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신자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기 34, 6장은 문턱에 따라 생각해 보면 현관문이 굳게 닫혀 있고 그 현관문을 통과할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긴급하게 접근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위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신자들이 뒷문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이는 두 번째 가능성일 뿐이고, 더 이상적인 가능성은 현관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의 첫 번째 편지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 뒷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가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바로 뒷문 접근 방식입니다. 그런데 5장에서 그는 현관문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현관문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3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정문 접근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이여, 우리에게는 5장뿐만 아니라 1장, 앞문과 열린 문, 앞문과 뒷문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뒷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백도어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애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십대 시절 교회 청년회에서 부르던 합창이 있습니다. 죄의 어두운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있습니다.

열려 있는 문이 있으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갈보리의 십자가는 당신이 죄인으로서 예수님께 나올 때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뒷문의 기독교 버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1장이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39절이 회중에게 적용될 생존에 대한 강조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멘토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회중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처럼 당신도 자신의 죄로 인해 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숨 쉬는 자 곧 살아 있는 자가 어찌하여 자기 죄의 형벌을 불평하리요? 그리고 나는 나의 죄가 형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고, 이것이 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23절에 나오는 대명사 스위치를 언급해 보겠습니다. 주의 신실하심이 크도다.

하나님을 3인칭으로 언급한 후 갑자기 감정의 전환이 일어나고 멘토는 직접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시편 23편에는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자주 눈에 띄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그분은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3인칭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2절에 보면 내가 가장 어두운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패턴으로 계속됩니다.

그러나 4절에 갑자기 전환이 있는데, 우리는 왜 그 전환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시편 23편을 설교할 때 걷는 법을 배운 어린 소년의 비유를 즐겨 사용합니다. 그는 걸을 수 있고, 어머니와 함께 외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는 그녀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걸어갈 수 있고 어느 정도 뒤에 있는 어머니를 뒤돌아 볼 수 있으며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개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목줄이 묶여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를 다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큰 개 때문에 겁이 나서 다시 돌아가서 엄마가 따라오기를 기다리다가 엄마 손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의 맥락에서 그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의 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돌리는 것이 있습니다.

자, 거기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위치는 동기가 다소 다릅니다. 애가 3.23에는 주의 신실하심이 크시도다.

고마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 이시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기도 스타일로 전환됩니다. 이제 24절로 가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이르되 여호와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바라리도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여러 곳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민수기의 한 구절과 민수기의 상황을 연상시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민수기 18장과 20절. 그 상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올 때의 상황입니다.

11개 부족은 농작물을 재배할 땅을 갖게 될 것이며 식량도 확보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할당된 땅이 없습니다. 그들은 농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시간은 성소를 조직하고 그곳에서 책임을 지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정규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진술이 나온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의 땅에서 분깃을 얻지 못하며 그들 중에 분깃도 얻지 못하리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의 몫이요 소유이다. 물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십일조와 첫 번째 제물과 예물을 가져오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 대부분은 과일과 채소의 형태였으며 그들은 그것을 동물 제물의 일부와 함께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가지고 성소에 가져오며, 하나님은 그것을 당시 성소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의 대표자들에게 전달하여 그들의 음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 왔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들이 받는 예배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땅에는 배당금도 없고 몫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몫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당신의 소유입니다. 사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부여받았고, 우리는 시편에서 이것이 믿음의 확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일반 신자들은 그것을 영적으로 자신들에게 적용하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땅. 나는 직업을 얻었다.

돈이 들어오지만 그 밑바닥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지원 시스템이고 근본적으로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142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5절 내가 애통하여 주께 부르짖으오니 여호와 여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산 자의 땅에서 나의 몫이시니이다 나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에게 의지하고 있으므로 지금은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영적인 확신이며 멘토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몫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 희망을 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하십니다. 18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던 것이 다 없어졌도다. 그 오랜 기대는 지나갔으나 21절을 보면 이것이 생각나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는 24절 끝부분에서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마지막 언급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희망입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기초하고, 신학적이며, 영적인 소망이며, 이것이 바로 제가 서 있는 곳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특정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의 특정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간증의 끝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25절에서는 40절까지 회중이 언급되지 않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매우 많은 것을 말하고 있으며 일종의 설교의 형태를 취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24절까지 확장되는 이 간증은 개인적인 간증을 일반화하고 회중에게 더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멘토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신자에게나 해당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며, 여러분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간증에서 이것을 암묵적으로 말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간증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고, 회중은 분명 귀를 기울였을 것이고, 그 간증에서는 멘토가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안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자신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분명히 그와 동질감을 느꼈고, 바라건대 그들도 그 놀라운 결말을 듣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그의 진심을 받아들였기를 바랍니다. 바라건대, 그들도 그것이 자신에게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 그는 출애굽기 34장 6절을 인용하면서 표준 이스라엘 신학의 이러한 요소들에 호소했고, 그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간증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며 일반화 자체만으로는 즉시 회중의 관심을 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흥미롭네요.

하지만 지금, 이것은 그가 25일부터 발표할 수 있는 설교의 도입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장의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라건대 25절에서 33절로 삭제된 33절까지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일반적인 신학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으며 과거 부정문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대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나쁜 경험.

그리고 이제 내가 말했듯이, 그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회중은 직접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현재의 재난과 고난의 위기를 넘어서 생각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종의 설교 스타일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애가의 문학적 전례를 살펴보면서 설교와 매우 흡사하게 읽히는 지혜시편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은 교훈적인 시편이며 분명히 가르치고 설교를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멘토가 채택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지혜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인용한 시편 34편, 그리고 인용한 시편 37, 49, 73편, 그리고 92편과 112편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지혜문학과 의 느슨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는 전문적인 지혜 교사들이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글을 쓰고 말하는 것은 지혜 교사들이 아니라 성직자들이다. 제사장들은 이중적인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배, 예배의 모든 세부 사항, 제사 등을 다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르치는 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교사들이었습니다.

2장에서 교육 부족 2.9 과정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는 이것이 부족하다는 제사장들의 지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사제 교육인데, 전문적인 지혜 교사의 스타일을 의지하고 선택하여 더 넓은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구절과 가장 가까운 구절은 사실 우리가 방금 인용한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과 11~22절은 사실 시편과 같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리라”고 말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녀 또는 아들, 문자 그대로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잠언이 사용하는 스타일입니다. 학생을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혜 선생님은 그들을 가르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학생에 관해서는 그 지혜 학생을 지혜 스승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스타일이 시편 34편 11절에도 적용됩니다.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그는 지혜로운 사고에 기초한 일종의 설교인 지혜 스타일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앞문과 뒷문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애도는 그 뒷문을 채택하고 멘토와 회중이 관심을 갖는 뒷문을 통해 들어와야 합니다. 하지만 시편 34편에서는 요한일서 5장처럼 현관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도움을 청할 때 우리는 37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멘토는 죄가 있었고 그는 더 이상 의롭지 않았고 회중도 더 이상 의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뒷문으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영적 또는 신학적 원리의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회개의 필요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긍정적인 측면은 죄의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애가 3은 결국 그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회개를 통해 성취되는 길,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가리키는 기초이자 앞으로 나아가는 약속과 희망을 만들어냅니다. 25절에서는 기다리는 자들과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26절에서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사람이 어렸을 때 멩에를 메는 것이 선하니라. 그리고 좋다는 말은 매우 도발적인 말입니다. 맏소사, 어떻게 회중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멘토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그가 방금 17절에서 말한 것과 반대입니다.

나는 행복, 번영, 말 그대로 선함이 무엇인지 잊어 버렸습니다. 그는 17절에서 선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하여 장면을 설정합니다. 외적으로 선함은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넘어서 지금도 선을 수반하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다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선 신학적으로 말하며 선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시편의 일부 참고 문헌 에서는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과 자기를 찾는 영혼에게 선을 베푸시는도다. 기다림은 희망의 동의어이다. 우리는 이 기본적인 희망, 즉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 너머에 긍정적인 미래가 있다는 새로운 기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선하시므로 이러한 축복의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새로운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그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를 찾는 영혼으로 인해 그것은 증폭됩니다. 여기에는 회개의 기도를 요청하는 첫 번째 힌트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추구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기다림의 일부이고, 그 희망을 고대하는 일부이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멘토에게 그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긍정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고 가정합니다. 그는 착하기 때문에 마땅한 처벌 이상의 긍정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반적인 목적을 요약하는 38절을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멘토는 하나님께서 미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했지만 28절과 38절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NRSV는 이 시점에서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새로운 국제역을 보면 38절에서 더 나은 번역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재난과 좋은 일이 모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 그대로 나쁜 것과 좋은 것의 대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확실한 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NIV와 같은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게 맞는 순서입니다. 먼저 나쁜 것, 그다음에 좋은 것.

그것은 분명히 멘토의 상황과 그의 간증과 일치합니다. 그는 유죄이고 죄에 대해 벌을 받지만 위기 속에서도 그 너머를 내다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동체의 위기라는 암울한 위기 상황에 있었던 회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너머를 바라보고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볼 것을 촉구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명령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NRSV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가장 높으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글썄요, 히브리어는 나쁘다와 좋다라고 말하지만 번역자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영어에서는 관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쁘고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고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럼 스타일리시하게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미를 망쳤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나쁘고 좋은 것입니다.

그게 꼭 필요한 순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반적인 목적은 나쁜 것을 넘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5절, 26절, 27절이 말하는 바입니다. 선하다라는 도발적인 단어를 도입하여 미래에 대한 기대로서 그들의 경험에서 사라진 모든 슬픈 기대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는 인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멘토가 45 절에서 도달하게 될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선함의 개념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는 구원이라는 축복된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는 위기로부터의 구원, 나쁘고 나쁜 경험으로부터의 구출을 의미하는 실존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특히 시편에는 구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가 담긴 이 말씀, 은혜가 담긴 새로운 말씀인 구원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그는 이제 시편의 언어인 구원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조용히 기다려야 하나님께 복종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는 처벌이 공평하고 정의롭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처벌이 필요하고 좋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우심으로 위기에서 구출될 것이라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27절에 보면, 네가 어렸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네게 좋느니라.

그는 그 멍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 시온이 말하는 것이 아니더냐? 내 죄악이 그분의 손에 의해 멍에에 메어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고정되었습니다.

그것들이 내 목을 짓누르며 내 힘을 약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 경험을 되돌아보며 말합니다. 회중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당신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멍에를 메는 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실제로 죄로 인해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공평하고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필요했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장 14절에서처럼 죄에 대한 형벌을 상징하는 멍에는 꼭 필요한 짐으로 져야 합니다. 그는 젊었을 때, 심지어 젊었을 때에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청소년, 젊은이들은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아들일 만큼 성숙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이에 반대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회중의 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받아들이고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자, 27부터 30까지 읽어보면 다 좋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26절 이후에는 27절만 좋은 것이 아니라 28절, 29절, 30절이 구문론적으로 모두 들어맞습니다. 첫째,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8, 둘째, 주님께서 명하실 때 조용히 혼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셋째, 입에 먼지를 묻더라도 아직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때리는 자에게 뺨을 내밀고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중이 겪었던 암울한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슬픔의 침묵을 받아들이는 것은 39절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숨을 쉬는 사람이 왜 자기 죄의 형벌에 대해 불평하겠습니까? 예, 조용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39절을 보면 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39절에서 침묵 속에 홀로 앉아 있는 것과 정반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입에 먼지를 묻고, 낮은 삶의 질을 받아들이고, 때리는 자에게 뺨을 내밀고, 모욕으로 가득 차 있으며, 심지어 이 시대에 박해와 굴욕을 하나님의 뜻의 일부로 받아들이지만 암묵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영원히는 아닙니다.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읽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29절 하반절, 아직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희망으로 돌아오지만 이제는 그 희망에 자격을 부여합니다. 아직 희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아직 희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쇠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희망에는 우연성이 따릅니다.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걱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해 매우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말 그대로, 아마도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성경에서 회개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이 종종 이 신성한 우연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럴 수도 있고, 누가 알겠습니까? 이 텍스트들을 읽어 보겠습니다.

아모스 5 장 15절, 악을 미워하고 선을 보고 사랑하라. 아마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따라서 변화가 필요하며 이는 실제로 회개하라는 요청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과 14절,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돌아서서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않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요나서 3장 8절과 9절은 니느웨 왕이 그의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신약성경을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여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마음의 뜻을 용서받게 하라. 구약성경 본문에 나오는 아마도 그리고 누가 아는 것과 매우 일치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25에는 디모데가 반대자들을 온화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진리를 알게 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나는 설교자가 회개가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지만 구약과 신약 성경에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상황에서 긍정적인 반전이 일어날지 여부는 주권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멘토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권리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섭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슬롯머신이 아닙니다.

올바른 동전을 넣으면, 헤이 프레스토, 초콜릿 바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영진에 불만을 제기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5장은 이 지점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학적 경고입니다.

그래서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미 본 것입니다. 형식 비판적 연관성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일종의 말하기가 있습니다. 회개를 이야기할 때 흔히 이 자격과 연결시키곤 합니다.

아마도, 누가 알겠는가. 그리고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별한 맥락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희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필요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여기가 텍스트가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위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다른 텍스트와도 매우 잘 들어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수사학적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분적으로 설득력 있는 장치로 사용됩니다.

시도해 볼 가치가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장할 수 없다. 시도해 볼 가치가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이라면 그것을 받아보고 그것이 당신에게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습니다.

원한다면 이 도박을 감히 시도하여 그것이 당신을 어디로 이끄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멋진 방향으로 이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도전이 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는 for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25절부터 27절까지의 좋은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5절부터 30절까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을 기반으로 합니까?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선하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니? 그러면 이러한 특정한 인간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왜 좋은가요? 그리고 25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선하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여기 31에서 33까지 반전되는 부정적인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비록 근심하게 하시지만, 그분의 풍부한 사랑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분은 기꺼이 아무에게도 괴로움을 주거나 근심하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정성에 반대되는 긍정적인 측면, 즉 일련의 부정적인 측면이 현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일시적이라는 뜻입니다. 일시적이거나 현재적인 하나님의 형벌은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는 3장에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는 개념을 이미 갖고 있었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8절에 내가 부르짖어도 나의 기도를 물리치시느니라.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낀다.

그러다가 3장 44절에서는 어떤 기도도 통과하지 못하도록 구름으로 자신을 감싸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부족하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부는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도 형벌의 일부였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당신이 받아들여야 할 형벌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미래에 다루실 것이라는 표시가 아닙니다. 그는 슬픔과 슬픔을 묘사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전례 초기에 선택한 단어입니다.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수많은 죄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온은 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의 날에 내리신 슬픔을 집어 들었느니라. 여기서 두 번 나오는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는 슬픔을 일으키고 비탄하게 한다는 뜻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586년에 정점에 달한 이 전체 재앙과 관련된 동사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반대하여 당신은 연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공허히 여기서 출애굽기 34장 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6절에는 우리가 이전에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인자하심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풍부함. 그리고 출애굽기 34장과 6절의 많은 부분이 인용된 22절과 23절에서는 사실 풍요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6절은 무엇을 말하는가?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이 넘치십니다. 그래서 회개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신학적 기초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그는 누구에게도 기꺼이 고난을 주거나 슬프게 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좋은 번역이지만 문자 그대로의 번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그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부터 누구에게도 고통을 주거나 슬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 이야기할 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은 꼭 필요한 현상으로 들어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속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형벌, 형벌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연민과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속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원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위해 고난을 주셔야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 그가 하고 싶은 일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동정심과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야훼의 본성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대신 연민과 변함없는 사랑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곳에 당신의 미래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것은 새로운 기대, 신학적 기대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가 이보다 더 나은 것을 기대하거나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이 모든 것은 인간이 받아들이는 단계와 회개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의 견해를 공유하는 인간 단계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연민과 확고한 사랑이 시작되고 해방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34절부터 5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34절부터 51절까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애가서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Dr. Leslie Allen입니다. 8회 애가 3:23-33입니다.